



‘아기 호랑이’ 박지훈이 배짱있는 피칭으로 KIA 불펜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SUN이 키우는 ‘아기 호랑이’ 박지훈, KIA 불펜에 희망投

불펜 난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KIA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 우완정통파 박지훈.

야구팬들에게 아직은 낯선 얼굴, 이름의 박지훈은 2012시즌 1순위 지명을 받고 KIA의 유니폼을 입은 신인 투수다.

박지훈은 지난 12일 팀이 1-9로 크게 뒤진 상황에서 삼성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안타를 두 개 얻어 맞기는 했지만 삼진도 하나 뽑아내며 첫 등판을 끝냈다.

두 번째 등판은 생각보다 빨리 또 의외의 상황에서 이뤄졌다. 13일 LG와의 경기, 무사 만루의 위기 그리고 2점차의 박빙의 승부에서 선동열 감독은 투기 박지훈을 다음 투수로 선택했다.

베테랑 투수에게도 심장 떨리는 무대에 선 박지훈은 정성훈에게 2타점 안타를 맞으며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이병규·최동수를 플라이로 잡은 뒤 심광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적시타를 맞기는 했지만 프로 두 번째 경기였던 신인으로서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투수였다.

박지훈은 “박빙의 상황에서 등판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초구에 변화구를 던졌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공이 많이 빠졌다”며

“6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피칭이었다. 실점을 했다는 것이 아쉽지만 금방 내 페이스를 찾아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무사만루에서 잡실구장 한 가운데 있던 박지훈은 15일에는 1과3분의 1이닝을

타고난 배짱·다양한 구질

LG전 호투로 자신감 충만

벌타로 막아냈다.

박지훈은 스프링캠프에서 선 감독의 눈길을 끈 윌성부터 덕있었다.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밸런스가 무너지며 불넷을 남발하자 선 감독은 바로 박지훈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강하게 키우겠다’는 선 감독의 의지였다.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선 감독은 개막 전 열린 자체 야간 흥행전에 박지훈을 불러들였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던지는 것을 못 보고 마감시간 때문에 엔트리 등록을 해야 했다”며 개막전 엔트리에 박지훈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할 정도였다.

선 감독은 흥행전에서 임준혁이 컨디

션 난조를 보이자 바로 박지훈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승패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1군 테스트를 한 선 감독은 박빙의 상황에 바로 박지훈을 마운드에 올려보냈다. ‘아기 호랑이’를 맹수로 만들기 위한 강한 조련이다.

단국대 에이스로 활약을 하며 쌓은 마운드 운영 능력과 타고난 배짱이 선 감독이 박지훈을 주목하는 이유. 여기에 다양한 변화구 특히 포크볼이 매력적이다. 노련한 운영능력이라는 장점을 얻는 대신 포기했던 ‘파워’는 선 감독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자 박지훈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다.

박지훈은 “대학시절 팀 에이스로 뛰면서 많은 이닝을 던지기 위해 파워보다는 요령이 있는 피칭을 했다. 변화구 위주 승부를 하면서 파워가 부족했다. 당장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또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고, 변화구에도 잘 안 속는 등 아파와는 확실히 다른 무대. 하지만 시범경기 때보다 컨디션도 좋고 몸쪽 승부나 타자들에게 대한 부담은 없다. 타석에 누가 서있는지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1군에서 계속 뛰면서 내 공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케냐의 웨슬리 코리가 지난 16일 미국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고 있다.
 /연합뉴스

더위먹은 보스턴마라톤

우승 2시간12분40초 저조

케냐의 웨슬리 코리(30)가 올해 116회째를 맞은 세계 최고 전통의 보스턴마라톤 대회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코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에서 열린 2012 보스턴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 2시간12분40초로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섬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탓에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기록에서 6분25초나 뒤졌다. 코리의 이번 기록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1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느린 것이다.

코리는 2위 레비 마테보(케냐·2시간13분6초)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1마일(1.6km)을 남겨놓고 역전해 성공했다.

이번 우승으로 케냐 올림픽 대표가 된 코리는 “내게 보스턴 마라톤은 올림픽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 대회에서 우승해 정말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대회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2시간3분2초)을 작성하고 월계관을 쓴 제프리 무타이(케냐)는 20km까지 1위로 달리다가 뒤질런 증세가 나타나 기권했다.

여자부에서는 사룬 체로프(케냐)가 2시간31분50초로 우승했다.

코리와 체로프는 우승상금으로 각각 15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받았다.
 /연합뉴스

화순고 기동력으로 우승

도루 32개로 전라권 1위 ... 왕중왕전 진출

기동력의 화순고가 2012시즌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화순고는 지난 15일 끝난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기 대회에서 전라권 1위로 황금사자기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5승1패의 성적으로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동성고 등을 제압하고 전라권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기동력과 끈질긴 승부 그리고 안정된 수비가 화순고 우승의 원동력.

이광우 화순고 감독은 “선수층이 얇지만 타자라든가 포수라든가 집요하게 승부를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 들었다”며 “포수 이종하를 중심으로 센터라인이 안정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튼튼한 안방마님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순고 야수진은 6라운드 경기에서 전라권 7개 팀 중 가장 적은 5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준우승 팀인 효천고가 9개, 진흥고가 가장 많은 15개의 실책을 범했다.

기동력은 화순고의 가장 큰 무기다.

6번의 경기에서 화순고는 톱타자 최민재를 중심으로 32번이나 베이스를 훔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광주일고와 전주고

가 가장 적은 3개의 도루를 기록했고, 효천고도 12개의 도루를 남기는 데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기동력이다.

특히 청소년 국가대표 최민재는 12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대도’로 맹활약했다. 최민재는 홈런까지 쏘아올리며 화순고의 공격 전면에 섰다. 화순고 에이스 천재환은 마운드를 돌리며 타석까지 점령하며 팀의 1위 행진을 이끌었다.

5경기에 등판한 천재환은 15와3분의2이닝을 지키는 동안 단 1점 만을 내줬다. 0.57의 방어율과 함께 20개의 탈삼진을 남겼다. 3번타자로 나서 24타수 10안타, 0.417의 타율로 2타점도 기록했다.

이광우 감독은 “대만 전지훈련을 다녀오는 등 일찍 시즌 준비를 하면서 팀플레이에 중점을 뒀고, 한 베이스 더 가고 점수는 덜 주겠다는 각오로 선수들이 끈기있게 또 집요하게 승부를 해왔다. 기동력과 수비의 야구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황금사자기에서는 8강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는 4강 고지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 가벼워진 축구대표 유니폼

6월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 착용

국가대표 축구팀이 홈경기 때 입을 새 유니폼이 한층 가벼워졌다. 대한축구협회 공식후원사인 나이키는 올 6월 시작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부터 선수들이 새롭게 입을 홈경기 유니폼을 17일 공개했다.

새 유니폼은 무게가 기존 제품보다 23% 가벼우면서도 체온 조절이 쉽도록 가능성이 강화됐다고 나이키는 설명했다. 이 유니폼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됐다.

상의와 하의 색은 태극 마크에서 가져왔다. 상의는 붉은색 바탕에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흰색을, 푸른색 하의 측면에는 호랑이 줄무늬를 넣었다. 상의 목 뒷부분 안쪽에는 ‘투혼’, 양말 상단에는 알파벳으로 ‘Korea’를 새겨 넣었다.
 /연합뉴스

2012 광주 세계대학 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여개국 참가 11월 빛고을체육관서 열려

“빛나는 열정으로(With a Ray of Passion)”

제12회 2012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영주종합체육관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린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개최하는 세계대학선수권대회는 2년에 한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개최되는 단일종목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20여개국 2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단체전과 개인전 5개 종목(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복식)에서 기량을 겨룬다.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 광주시장)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단 18팀의 준비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인 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18일에는 로저 요한슨 FISU 배드민턴 기술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경기장, 선수단 숙소 등 대회 시설을 둘러보고 분야별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